

방직공장 '삼총사' 광주 총생산 56% 차지 생산도시 선도

〈도시·종방·약림제사〉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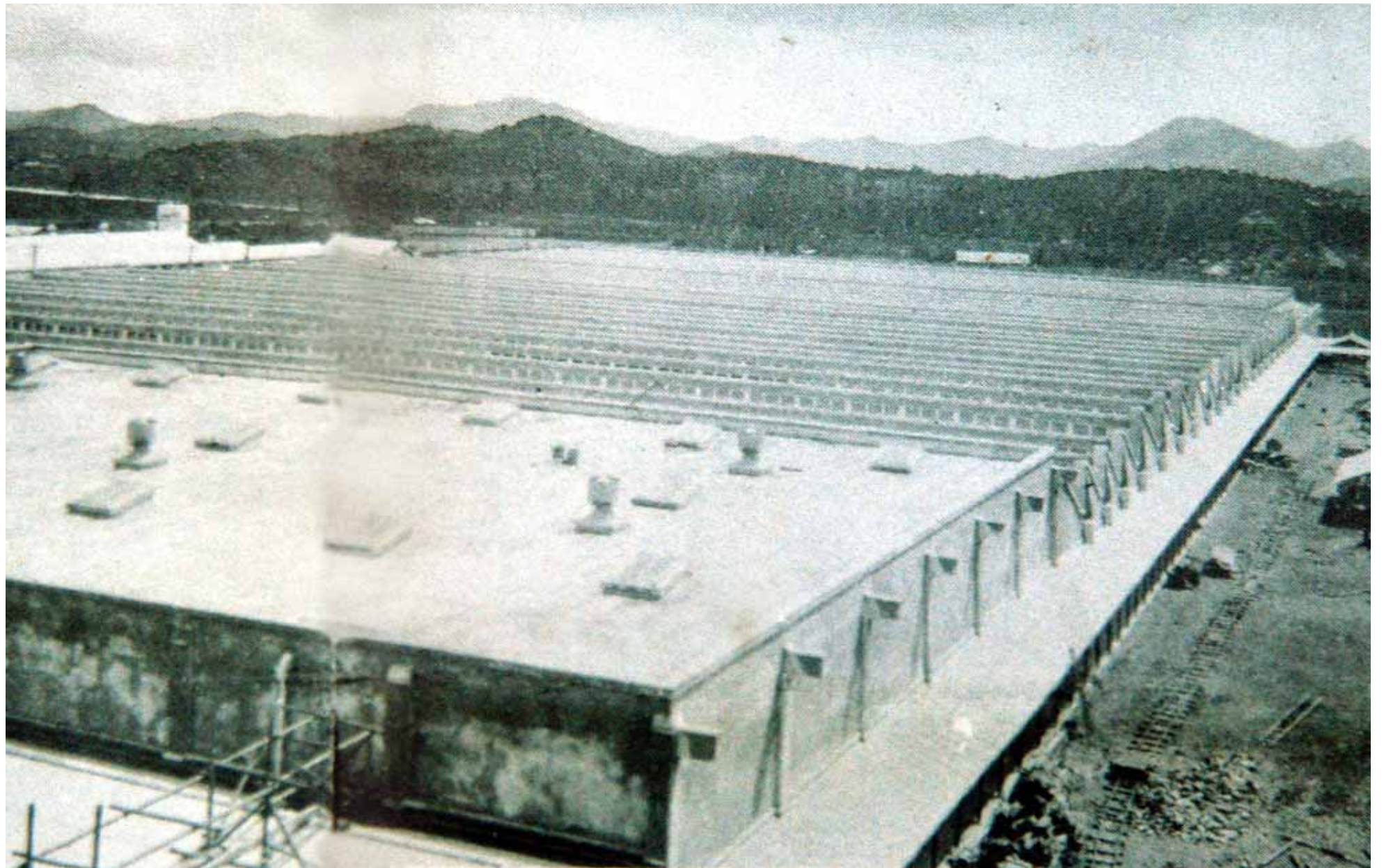
19. 근대산업 이끈 3대 공장 들어서다

1926년 공장 가동 상업도시 진용 갖춰

철도·은행 들어서며 읍→부 승격 기여

1936년 공장 총 51곳 생산액 521만원

해방후 故 박인천 회장 도시제사 인수



중연(가네보)방직공장 전남공장



전남도시제사공장



중연방직공장 광주공장



약림제사공장

1900년 이전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했던 광주에 대규모 공장이 있었을 리 없었다. 다만 1897년 목포항이 개항된 뒤 광주로 진출한 일본인들이 조면공장이나 도정공장, 정미소, 양조장, 주조장, 인쇄공장 등 소규모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다가 앞서 설명한대로 광주전 개수 및 정리 사업이 시작된 1926년 지금의 양동인 광주전변 교사리 1번지(전정 60번지)에 전남도시제사공장이 들어서면서 광주는 공업도시로서의 첫 출발을 알렸다.

전남은 전국 유수의 누에고치 생산지였으며,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때마다 광주에 공장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다.

먼저 전남도시제사공장은 자본금 200만원으로 1926년 5월 25일 설립된 전남도시제사(주)가 모회사다. 설립 목적은 명주실의 제조 판매, 누에고치의 매매 및 그 중개, 저장 창고, 영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또는 자금 운용에 필요한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 등이었다. 대표는 일본면화주식회사의 사장을 지낸 일본인이 맡았으며, 이 회사의 대주주 역시 일본면화주식회사였다.

전남도시제사공장이 들어선 배경에 대해 1925년 출간된 '조선의 보고 전라남도의 총관'에서는 광주가 1924년 인구 10만39명(일본인 5143명, 외국인 200명)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호남선 및 남철선이 역내를 관통하며 그 외 2, 3등도로가 사통팔달로 연결돼 교통이 극히 편리한 점을 들고 있다. 또 면작(목화 농사) 면적이 2100정보, 양잠 생산량이 1300여 석에 이르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도 호남은행을 위시해 식산은행 광주지점, 금융조합소 등이 있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도시제사공장이 들어선 지 3년 만인 1929년 전남의 누에고치 생산량이 4만석을 넘어서는데, 도시제사공장에서는 2만석밖에 소화하지 못해 나머지가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남도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종방(가네보)제사회사와 교섭을 벌이고 광주에 그 해 가을 제사공장을 설립하기로 한다. 광주는 1930년 봄 전남의 누에고치 생산량이 1929년 4만석에서 2만석이 늘어난 6만석을 돌파, 도시제사공장, 이어 1929년 종방제사공장, 유림리(북구 유동과 임동 일대)에 약림제사공장의 기초공

사를 끝냈다. 또 1934년 전남도는 일본 고베에 있는 중연방직 본사에 찾아갔고 곧이어 이 회사는 광주 유정(북구 유동) 농사시험장과 원잠종제조소 부근 5만평의 부지에 공사비 600만원을 투입하는 대공사에 착수했다. 중연원은 남자 500명, 여자 2000명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다.

하지만 이들 3곳의 공장들은 당시 여성들을 하루 15~16시간씩 일을 시키는 가혹한 능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여공들에게는 점심을 금지하는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유명했다. 이로 인해 도시제사공장을 시작으로 여공들이 연쇄파업을 하기도 했다. 1929년 8월 27일자 동아일보는 도시제사공장에서 능률이 부족하다며 여공 15명에게 점심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1932년 11월 6일자에서는 광주도시제사공장 500명 여공이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동맹파업을 벌여 매일 아침 함성을 질렀으며, 회사 당국과 경찰의 제지로 13일 다시 일했으나 14일 다시 파업했다는 소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1937년까지 이들 3곳의 공장 중 단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연방직주식회사였다. 중연방직주식회사의 광주공장도 전남공장은 광주 전체 생산액의 절반을 넘어서었다. 이 같은 중연방직의 광주 경제에 대한 기여를 감안, 조선총독부는 1934년 10월 23일 극락면 동림리(북구 동림동) 광주전 부지에 공장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20년간 공작물 설치(1934년 10월 27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2340호)를, 1935년 5월 11일부터는 중연방직공장과 광주역 사이의 전용철도의 운수 개시를 각각 허가했다(1935년 5월 15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2499호).

이들 3개 공장은 광주가 읍에서 부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1935년 8월 2일자 광주읍의 조선총독부 보고자료는 광주는 조선 남쪽지방의 행정중심지에 불과했으나 1922년 송정리~담양 간 전남철도 개통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상시적인 소비지역에서 탈피했다고 적고 있다. 1930년 시가지 정리, 남조선철도의 개통과 함께 시가지의 면목을 일신하고 물자의 수송 및 상거래 등이 폭증했으며 금융기관이 완비되는 등 신흥 상업도시의 진용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한편 1934년 광주에는 상업 관련 광주어업합자회사(자본금 1만원) 등 10곳(총자본금 8만7200원), 공업

관련 전남도시주식회사(자본금 200만원) 등 10곳(총자본금 6576만6000원), 은행금융업 관련 주식회사 호남은행(자본금 200만원) 등 4곳(총자본금 3260만원), 운수업 관련 남조선철도주식회사(자본금 2000만원) 2곳(총자본금 2400만원), 전기업 관련 대흥전기주식회사 광주지점(대구부 소속) 1곳(총자본금 500만원) 등 27개의 회사가 있었다. 이들의 총자본금은 1억2745만3200원이었다.

또 1936년 광주의 공장 수는 51곳으로, 종업원 수 3870명(남 1270명 여 2600명), 생산액은 521만4454원이었다. 앞서 1936년 3개 공장의 생산액이 291만3339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공장들이 광주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이 전남도시제사공장 부지의 주식 2만6637주는 전남대 기성회에 불하되고 기성회는 이를 6억3476만원에 금호그룹 창업주인 故 박인천씨에게 팔았으며, 이곳에는 지금 금호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임동의 중연방직은 해방후 미군정이 김형남을 관리인으로 임명, 향후 전남방직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편 일제강점기 도로 개설이나 하천 개수 등 토목사업이 잇따르면서 일본에서 토목업체들이 대거 광주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업체는 삼평조(森平組)였다. 삼평조는 십 수만 원을 투자해 담, 전, 원야 등을 사들였고 광주는 물론 담양, 장성 등 전남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일본 고베의 개발업자와 공무원, 자본가 등이 합작한 회사로, 비슷한 구조의 일본 회사들이 일제강점기 주요 보직을 장악한 지역 관공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특혜를 받고 수익을 독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